

蔣韻 장편소설 《行走的年代》 初探

金鍾碩*

<목 차>

1. 들어가며
2. 시, 사랑, 인생의 여정
 - 2.1 1980년대, 순수와 낭만의 여정
 - 2.1.1 1980년대의 시대 분위기
 - 2.1.2 '길'과 '길가기'의 다양한 변주
 - 2.2 죽음과 운명 비극의 인생 여정
 - 2.2.1 황혼, 비애와 불안
 - 2.2.2 살아남은 자의 슬픔
 - 2.2.3 '상실'의 자각과 지난간 '청춘'에의 추도
3. 나오며

1. 들어가며

蔣韻(1954~)¹⁾은 중국 문단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여성 작가 중 한 명이

* 고려대 BK21 中日言語文化敎育研究團 연구교수

1) 蔣韻(1954~): 중국 당대 여성 작가. 중국 작가협회 회원, 山西省 작가협회 의장단 위원, 太原市 文聯 부주석이며,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혁 시기인 1970~77년까지 太原建築材料廠과 太原水電安裝隊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였다. 1978~81년까지 太原師專 중문과에서 공부하였다. 1981~92년까지 동 대학 중문과와 예술 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9년 문학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300만 자에 이르는 소설 및 산문을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장편소설 《隱秘盛開》, 《櫟樹的囚徒》, 《紅殤》, 《閃爍在你的枝頭》, 《我的內陸》 및 소설집 《現場逃逸》, 《失傳的遊戲》, 《完美的旅行》, 산문집 《春天看羅丹》, 《悠長的邂逅》 등이 있다. 이 작품들로 '上海文學獎', '山西文學獎', '趙樹理文學獎' 등 중국에서 권위 있는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작품 《心愛的樹》로 제4회 魯迅文學獎(2004-2006년) 전국 우수 중편소설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의 작품은 또한 해외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다. 1979년 최초로 소설을 발표한 이래, 비평가들의 높은 평가와 관심을 획득하고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높은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山西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름난 李銳의 아내이자 '80後' 작가 笛安의 어머니로만 알려져 있으며, 蔣韻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하지만 蔣韻은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나 명성에 초연하며, 지금까지 시대 유행적인 문학 사조나 유포에도 전혀 몸담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작가의 독특함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충실함에 있고, 이러한 충실함을 각골명심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있다”²⁾는 신념하에, 문학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추구한다. 자타 공히 ‘고전적 정신성을 추구하는 작가’로 평가되는 蔣韻은 이를 글쓰기로 체현하고 있다.³⁾ 따라서 “여성의 특수한 감각과 방식으로 섬세하고 느릿느릿 인생의 의의와 의미에 대해 음미하고 곱씹으며”, “여성과 생명 존재의 본체적 의의 및 이와 관련된 갖가지를 고통스럽게 사색하고 있는 작가”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0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출판된 최신작 《行走的年代》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은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역사 변천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작가의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념과 “당대 중국에 대한 문학적 발견과 반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⁵⁾ 다시 말해, 이 작품 속에 작가의 변치 않는 작가 정신과 풍격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또한 “이 작품에 흐르는 정취, 인물의 면모, 정감 방식과 행위 방식 및 소설의 총체적 분위기는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최고의 경지로 정제시켜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낭만적이고, 결연하지만 感傷적이며, 용감하게

2) 張滢瑩·蔣韻, <蔣韻: 作家的獨立性就在於他對自己內心的忠實>, 中國新聞網: (<http://www.chinawriter.com.cn/news/2011/2011-05-24/98004.html>) (검색일: 2012.3.1.)

3) 허샤오윈, <한 그루 나무와 만나다—장원과 고결한 정신> (장원, 《길 위의 시대》, 허유영 옮김, 자음과 모음, 2010), 276-277쪽 참조.

4) 毛時安, <美麗的憂傷>, 《上海文學》 1992年 第6期, 1992, 70쪽.

5) <編後記>, 蔣韻, 《行走的年代》, 上海文藝出版社, 2010, 199쪽 참조.

나아가 무참하게 깨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했던 청춘 시절이다. 그러나 낭만이 현실과 만나고 이상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청춘이 지나간 뒤의 추억만 남는다. 蔣韻은 우리 내면에 오랫동안 흐르지만 노래한 적 없는 ‘청춘의 노래’를 썼다”⁶⁾는 고도의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작품에 반영된 작가 정신과 주제 사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가가 시종일관 견지하는 문학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사유를 살피려 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내면에 ‘낭만과 순수의 시대’로 깊숙이 각인된 1980년대 대한 노스텔지어, 인간의 본래성을 점차 ‘상실’해가는 현대에서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상실’과 이로 인해 비롯된 슬픔과 비애, 그리고 부조리한 운명과 맞닥뜨리면서도 이에 압도되지 않는 작중인물들의 삶의 여정에 주목하려 한다.

蔣韻의 《行走的年代》는 중편소설과 장편소설 두 버전으로 출간되었다.⁷⁾ 중편소설의 경우 비교적 짧은 편폭에 주요 인물들의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역정을 다루려다 보니, 다소 험거운 구성과 시간의 갑작스런 전환에 따른 여백을 독자들이 메우도록 강요하는 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메우고, 주요 인물의 심리와 내면세계에 대한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를 잘 살리고 있는 장편소설집을 고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6) 孟繁華, <二〇一〇: 印象“中篇”>, 《人民日報》(검색일: 2012.3.1.)(<http://www.chinawriter.com.cn/wxpl/2011/2011-01-18/93418.html>)

7) 하나는 한중일 3국의 당대 작가들의 작품 소개를 통해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자, 한중일 문학 간행물 《小說界》, 《자음과 모음》, 《新潮》의 공동 기획 하에 발표된 중편소설 《行走的年代》이다. 이 중편소설은 《小說界》 2010년 第5期에 발표되었으며, 이를 저본으로 한 번역본 《길 위의 시대》가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上海文藝出版社에서 정식 출판되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章節이 대폭 늘어나고 재배치된 장편소설 《行走的年代》이다. 중편소설로 발표되었을 때는 본래 6장으로 구성되었고, 국내에 출판된 소설집 《길 위의 시대》(허유영 옮김, 자음과 모음, 2010.12) 역시 이 중편소설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되었다. 이후 출판된 장편소설에서는 5장과 결론 격에 해당하는 6장 사이에 새로운 장(第6章 天使在微笑/ 第7章 神的眼睛/ 第9章 兄弟)을 집어넣고, 중편소설의 6장 1, 2절을 8장에 넣은 뒤 3절 ‘重逢’을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6장 3절을 10장 祭壇의 1절에 배치한 뒤, 2절 ‘強迫症’, 3절 ‘靈魂的味道’, 4절 ‘答應我一件事’을 새로 집어넣었다. 6장 4절 ‘仁者愛山’은 10장 뒤의 결말에 해당하는 ‘尾聲’으로 재배치되었다.

2. 시, 사랑, 인생의 여정

《行走的年代》에서 작가는 시인 莽河를 매개로 얽혀 있는 두 여성 葉柔와 陳香,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몇몇 인물(老周, 洪景天, 明翠)의 청년기에서 중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을 펼쳐 보인다.

작품의 전반부는 안락한 미래가 보장된 학술 기관을 박차고 나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유랑'하는 시인 莽河의 자아 찾기의 여정, 그리고 葉柔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비롯된 사랑의 여정이 서술의 중심이다. 다른 한편, 시인 "莽河"와의 하룻밤 풋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의 아이 小船을 임신하고 영원히 이 "시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陳香, 그녀와 小船을 절절히 사랑하는 老周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려진다.

후반부는 자신이 사랑한 시인 "莽河"가 가짜였다는 잔혹한 진실과 대면하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陳香과 그녀의 남편 老周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로 인한 남편 老周와의 이혼과 함께 찾아온 아들 小船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녀를 나락으로 빠뜨린다. 그리고 내면에 아픔만 간직한 채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 老周와 馬海龍의 사랑 등이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으로 90년대 이후 葉柔의 죽음으로 야기된 고통을 잊기 위해 시를 포기한 채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다른 반려자 나타샤를 만나 사랑하면서 결국 세속적으로 성공한 趙善明(莽河의 본명), 시를 뜨겁게 사랑한 채 莽河를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따라나서며, 시인 莽河가 되돌아오기를 염원하다 그를 위해 목숨까지 대신 바치는 洪景天의 시적 삶과 우정 등이 묘사된다.

마지막 결말은 순수의 공간을 암시하는 산골 '希望小學'⁸⁾에서 趙善明과 陳香이 후원자와 교장의 신분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비극적 운명으로 인

8) '希望工程小學'(희망 프로젝트 초등학교)의 약칭으로, 희망 사업에 참여한 기증자가 빈곤 지역에 건립한 초등학교를 가리킨다.

한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과거를 담담히 추억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중년의 두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과 마지막 이별 광경을 통해, 찬란했던 80년대와 그 시기 '청춘' 및 순수와의 아쉬운 이별과 절절한 그리움을 암시한다.

이러한 서술은 尋根文學이 막 꽃을 피우던 1980년대 중반('낭만과 시의 시대')부터 1990년대 초에서 현재('下海의 시대', '물질과 욕망의 시대')에 이르는 시대적 배경과 긴밀히 맞물리며 펼쳐진다. 또한 공간적 배경 역시 작중인물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황토고원을 중심으로 한 陝北의 작은 도시 및 변방 오지('영원성'을 상징하는 자연이 중심이 되는 시골)(1980년대)→ 러시아, 남방과 도시("南方", "威海") 등(사람들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실 공간)(1990년대 이후)→ 에필로그(21세기 현재)의 산골 '希望小學'으로 변화되며 플롯의 전개와 긴밀히 호응된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는 '길'이라는 매개체와 '걸어감'이라는 행위를 통한 '길 가기' 혹은 '여정'이란 단어로 수렴된다. 작가가 직접 밝히듯, 인간은 '길 위를 걷는 나그네'라는 인식이 그녀의 내면에 강한 콤플렉스로 남아 있으며, 이는 작품의 주요 배경과 테마가 된다. 작중 인물들 역시 하이데거식 표현을 빌자면 '고향 상실'로 인한 '고향 회귀'를 피하며, 이상과 순수를 추구하지만 이를 압도하는 현실 세계와의 간극 때문에 숙명적으로 '돌아갈 귀속처'가 없는 '타지인', '방랑자'로 규정된다.⁹⁾

《行走的年代》에서도 '길'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인간 삶(인생)

9) ① '길 위에서'("在路上"), 이것은 인류의 자기 연민의 콤플렉스지만, 나 자신에게는 더욱 큰 콤플렉스이다. 길 위를 이토록 오래도록 걷지만, 당신이 힘겹게 찾는 '고향'이 앞에 있는 지 뒤에 있는지 결국 모른다. (.....) 이는 또한 최근 몇 년간 나의 거의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 내 주인공들은 하나하나 '타지인', 방랑자일 수밖에 없다. '길 위에서'는 숙명과도 같아서 그/그녀의 전생과 내세를 뒤덮고 있다. 그들은 인류의 노스텔지어와 영생의 곤혹감을 짊어진 채, 길에서 고향의 역사적인 길을 찾는다. 그들은 詩情으로 충만하지만 (그들이) 시와 만날 가능성은 영원히 없다. 바로 이렇듯 그들은 돌아갈 귀속처도 없이 애매하게 내 이야기로, 내 소설 세계로 걸어 들어왔다. 蔣韻, <在路上>, 《文學自由談》1992年 第4期, 1992, 29-30쪽.

② "사방을 걷는" 이 "걷다"("走")라는 글자는 여전히, 어쩌면 영원히 나를 깊이 빠지게 할 것이다. 蔣韻, <田野札記: 走台口>, 《天涯》2002年 第4期, 2002, 60쪽.

③ 정신적으로 나는 방랑자("漂泊者")다. 蔣韻, <關於《隱秘盛開》>, 《當代長篇小說選刊》2005年 第5期, 2005, 158쪽.

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오브제이면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대상¹⁰⁾이 된다. 하이데거 식 표현을 빌자면, 인간은 ‘被投적 존재’ 즉 길 위에 던져진 존재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길’(여정)의 의미는 莽河의 자아 찾기의 여정, ‘길가기’를 통한 知己와 연인과의 만남이라는 ‘관계와 연결’의 길, 연인 葉柔와의 사랑과 順수의 여정 등 다양한 의미로 변주된다. 하지만 작품 전체에서, 이들의 인생 여정과 이로 환기되는 인간 자체의 인생 여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간의 삶은 자기 ‘길’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 의해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길 위에서의 방황과 번뇌 속에서 발견되고 형성됨을 작가가 작품에서 설파하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작중인물들의 인생 ‘여정’을 1980년대 順수와 낭만의 여정, 그리고 죽음과 비극적 운명의 인생 여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편폭의 한계로 인해, 1절에서는 주로 시인 莽河와 葉柔에 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2절에서는 부조리한 삶의 진실과 소중한 이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陳香과 老周, 趙善明(=莽河)의 인생 역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 1980년대, 順수와 낭만의 여정

2.1.1 1980년대의 시대 분위기

《行走的年代》의 주요 인물 모두 ‘낭만과 천진, 이상’을 상징하는 대변혁의 시대인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와 ‘시’(문학)라는 공통분모로 얽혀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간의 지명도가 있던 시인 莽河, 그의 知己가 된 시골 시인 洪景天과 ‘시’와의 밀접한 관련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주요 인물

10) <길트기의 나날—한국소설의 ‘길’>,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162 쪽.

인 陳香과 그의 남편이자 선배 老周, 친구 明翠는 모두 소도시 대학 중문과 선후배 출신이며, 졸업 후 학교에서 문학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다. 특히 陳香은 취업 준비로 바쁜 졸업반 무렵에도 문학 서클에 참여하고 시인과의 좌담회에 참석하는 등, 시를 숭배하며 내면에 순수와 열정, 이상을 간직한 열혈 ‘문학청년’이었다. 이로 인해 ‘莽河’와의 좌담회에서 그와 사랑에 빠지고 기꺼이 자신의 순결까지 바친다.

莽河의 연인 葉柔는 사회학과 대학원생이라는 점에서 ‘시’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莽河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시를 읊고 莽河의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녀 역시 ‘문학청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전성기를 향해 구가하던 尋根文學의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莽河와 운명적 만남이 가능했음¹¹⁾이 작품에서 암시되었다.

이러한 인물 형상들에는 문학과 시에 심취했던 작가의 이력 및 정감과 사유가 투영돼 있다. 蔣韻은 문혁기인 15세 때 晉中平原의 北辛武라는 시골에서 생활했고, 부모님의 친구였던 할아버지의 심미적 계몽을 통해 내면을 담은 시에 심취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이는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켰다¹²⁾. 또한 독서를 통해 주류 문화와는 다른 인성, 사랑, 선과 미를 통해 현실과 생명을 되돌아보게 되는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졌다¹³⁾. 더욱이 1980년대 중반, 尋根文學의 매력에 심취돼 전혀 가 본 적 없던 어머니의 고향을 홀로 찾아갔던 이

11) 다음 묘사가 이를 잘 뒷받침한다. “출발 전 그녀는 가본 적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특별히 陝北으로 우회한 것이다. 이 ‘문학청년’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한 ‘尋根文學’에 매료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陝北으로 온 것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出發前, 她特意繞道陝北回到了自己從未回過的老家, 不用說, 這個‘文藝青年’是受了方興未艾的‘尋根文學’的誘惑: (……) 那一夜, 他失眠了。他想, 原來, 神差鬼使莫名其妙讓他來到陝北, 是爲了讓他遇到一個好姑娘。) 蔣韻, 《行走的年代》, 上海文藝出版社, 2010, 11쪽. 이후 서지에서는 간략히 페이지만 명기하고자 한다.

12) 나는 시에서 도시 및 격동하는 잔인한 시대와 완전히 다른 소박함, 선량함, 感傷 그리고追問이 있는 색다른 생활을 발견했다. 그 생활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시를 짓겠다는 바람이 싹트기 시작해, 몰래 시를 짓고 절박하게 책을 읽었다. (……) 그것이 일종의 계몽——심미적 인생의 계몽——이라 생각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나의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蔣韻, <閱讀田野>, 《語文世界》2001年 第2期, 2001, 7쪽.

13) 자세한 내용은 蔣韻, <內心的力量>, 《語文教學通訊》2005年 第18期, 2005를 참조할 것.

력¹⁴⁾은 葉柔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소설은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들, 詩興이 충만했던 순간들을 담아두기 위해 쓴 것이다. (.....) 어쩌면 이 소설을 통해 나의 80년대에 경의를 표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게 있어서 그 시절은 시의 시대였다. 청춘, 자유, 낭만, 순수, 걱정 등 모든 것이 신선하고 강렬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육신이든 영혼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불꽃처럼 뜨겁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시절은 또 현실과 동떨어진 환각 같은 시대이기도 했다. 그때는 현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¹⁵⁾

이 소설의 창작 동기를 작가는 “나의 80년대에 경의를 표하려는 것”이라 말하며, 그 시기를 ‘시의 시대’라 규정짓는다. 그리고 순수와 열정, 낭만을 환기시키는 일련의 단어들을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제시한다. 회고 속 그 시절은 현대인들의 현재적 삶과는 거리가 먼 마치 “환각 같은 시대”로 묘사된다. 이렇듯 “나의 80년대”라 명명하며, 이것이 객관적이기 보다 작가 자신의 ‘주관적 진실’이자 선택적인 ‘청춘 기억’¹⁶⁾을 작가는 애써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작가의 ‘주관적 진실’과 ‘기억’을 넘어선 객관적 사실과도 합치된다. 사회 저변에 퍼진 낙관주의적인 분위기가 정치적·시대적 환경의 변화 및 지식인 담론과 밀접히 결합하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의 주선물’을 확립하였으며, ‘시적 정감’과 미래에 대한 보편적 기대감(‘이상주의’)이 만연했음¹⁷⁾은 이 시기를 경험한 문학가·지식인의 공통적인 공감대를 이룬다.

따라서 작가는 “行走的年代”라는 제목 자체에 이 시대가 ‘길’과 ‘걸어감’을 특징으로 하던 낭만적 시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직접적으로 ‘낭만의 시대’, ‘천

14) 장원, 앞의 책, 287-288쪽 참조.

15) 장원, 같은 책, 290-291쪽.

16) 저의 ‘80년대’가 객관적이라 생각한 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모든 진실은 사실 ‘주관적 진실’입니다. 각자 자신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의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한 기억’도 모두 선택적인 기억입니다. 저는 ‘80년대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 이는 제 자신의 ‘80년대’이며, 제 자신의 청춘 기억일 따름입니다. 張滢瑩·蔣韻, 앞의 글.

17) 명관화(孟繁華) 지음,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김태만·이종민 옮김, 예담, 2002, 24-25, 51쪽 참조.

진함의 시대'18)라는 말로 이 시대를 규정한다. 또한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격정'으로 가득 찬 '시인'들의 '유랑'에 의해 세계와 자연의 순수와 이상이 세상에 전파되던 '시의 시대'로 묘사하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사회의 주도적 분위기였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는 유랑의 시대였다. 전국 각지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시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황토 먼지 자욱한 농촌의 흙길 위에서든, 움푹달작 못하게 사람들로 가득 찬 지저분하고 넓아빠진 시외버스 안에서든, 역마다 정차하는 가장 느린 완행열차 객차 안에서든, 격정으로 충만한 젊은 시인 하나쯤은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쓴 남루하고 고단한 행색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맑았다. 諾日朗, 像德令哈, 像哈爾蓋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멀고도 티 없이 깨끗한 변방의 모퉁이들이 이들의 발자취와 시를 따라 하나둘씩 왁자지껄한 속세와 인간 세상으로 걸어 들어왔다.19)

2.1.2 '길'과 '길가기'의 다양한 변주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黃河를 건너 뿌리를 찾아왔다는 米脂 아가씨가 이 오래된 작은 도시에서, 황토 고원의 질박한 내지에서, 실의에 빠져 이리저리 유랑하는 시인을 알아봤으니 그의 시는 그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암호였다.20)

이것이아말로 저 유랑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이었다.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변방 외딴 마을이든 어디서나 시를 매개로 멀리서 온 시인을 맞이하러 나올 수 있었다. 생면부지의 또 다른 시인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뜻밖의 느낌과 놀라

18) ① 그러한 낭만의 시대에는 작은 명성을 지닌 시인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도시에서는 큰일이였다. (在那樣一個浪漫的年代, 一個小有名氣的詩人的到來, 就是小城的大事了。)(1쪽.) ② 이러한 뜻밖의 만남은 저 낭만의 시대, 천진함의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였다. (這樣的奇遇, 只能發生在那個浪漫的年代, 天真的年代。)(10쪽.)

19) 上世紀八十年代, 是一個遊歷的年代, 詩人們的足跡遍布大江南北, 長城內外。在某條黃塵滾滾的鄉村土路上, 在某個破爛擁擠汗濁不堪的長途客車上, 在一列逢站必停的最慢的慢車車箱裏, 都有可能出現一個年輕的充滿激情的詩人。他們風塵仆仆, 眼睛如孩子般明亮。那些遙遠純淨的邊地, 人跡罕至的角落, 像諾日朗、像德令哈、像哈爾蓋, 隨著他們的足跡和詩, 一個一個地, 走進了喧嚷的塵世和人間。(1쪽.)

20) 不過已經夠了, 一個跨過黃河來尋根的米脂姑娘, 在當地老天荒的小城, 在黃土高原渾厚的腹地, 認出了一個漫遊的落拓詩人, 他的詩是他們相互辨認的暗語。(10쪽.)

운 기쁨을 가져왔다. 시인이 길 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낭만이요 소중함이자 친진함이 존재하는 곳이었다.²¹⁾

첫 번째 인용문은 실의에 빠져 자아 찾기의 길을 헤매던 시인 莽河와 葉柔의 운명적인 만남에 관한 묘사이다. 이들 두 사람을 연결 지워준 매개체가 바로 '길'과 '시'였다. '시' 혹은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서로를 이어주는 일종의 식별 암호로 작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 연인의 만남과 영혼의 소통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 역시 갑자기 종적을 감춘 葉柔를 찾기 위해 莽河가 어느 시골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후知己이자 형제가 된 시인 洪景天과의 첫 만남을 묘사한 단락이다. 여기서도 '시'와 '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0년대에 '시'라는 암호와 '시인'이라는 신분은 전국 어디를 가든 '시'의 신도들과 또 다른 '시인'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가능케 했다. 시와 시인을 뜨겁게 환영할 줄 아는 사회와 시대적 분위기, 이것이 바로 80년대 중국 사회의 특징이었다.

주목할 점은 시인과 길 혹은 길가기('유랑')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결과 관계'의 기능이다. 길이 지역과 인간, 정신과 물질, 사회와 개인이 상호 교차·교직되는 공간임을 감안하면, 이 길을 걷는 '길가기' 행위는 결국 인간 상호간의 진정한 영혼의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 莽河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葉柔와 洪景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인의 '유랑'이란 말이 연상시키듯, 길은 자아 찾기의 정신 역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시인, 자아 찾기와 길가기

“가끔은 내가 어떻게 시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엔 운통

21) 這就是那個遊歷的年代常見的風景。在任何一个城市、小鎮，任何一處邊地，都有可能迎面走來一個遠方的詩人，以詩的名義，和另一個從未謀面的詩人會師，帶來意外和驚喜。這就是那個時代的浪漫和珍貴之處，也是它的天真之處：詩人在路上。(44쪽.)

상인의 피만 흐르고 있는 걸.”/“이미 시인이시잖아요.”葉柔가 말했다./“하지만 내게 정말 시인의 영혼이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해요. 시 몇 줄 끼적일 줄 안다고 다 시인은 아니니까.” 그는 황톳빛 고원과 고즈넉한 촌락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내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뭔가 증명하려 발버둥 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도망치려 하지요. 그건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²²⁾

莽河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葉柔에게 토로하는 장면이다. 자신이 시인이라는 신념도 확신도 없기에,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로부터 범속한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내면의 ‘길가기’ 욕구가 비롯될 수 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학술 기관에서의 삶은 오히려 그에게 ‘정주’의 즐거움 보다 지긋지긋함으로 다가온다²³⁾.

길은 ‘정주와 안락’을 상징하는 집의 대척점에 놓인 공간이다. 따라서 ‘길가기’를 통한 시인으로서 자아를 찾으려는 욕구가 일종의 ‘부름’의 형태로, 숙명적으로 그의 사유와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²⁴⁾. 이로써 여행과 방랑을 통한 시인의 자아 찾기의 도정이 펼쳐지게 된다. 시인은 정주와는 거리가 먼 존재²⁵⁾이자 영원히 정신적 거처를 찾아 표류하는 자, 즉 ‘자기 추방자’인 것이다.

22) “有時候，我想，我怎麼可能成爲一個詩人呢？我從頭到腳，流的都是商人的血。”/“你已經是詩人了。”葉柔說。/“可我懷疑自己，我是不是真有一個詩人的靈魂？會寫幾行詩未必就是一個真詩人。”他凝望著鮮黃的原、安靜的小村落，緩緩說道，“也許就是因爲我懷疑，所以，我快要迫不及待地去證明什麼，我快要逃跑，從平庸的日常生活中出逃，那是因爲我害怕真相——是不是這樣？”(14쪽.)

23) 사무실 생활은 선로를 따라 운행되는 열차처럼 끝없는 반복이었다. 이러한 평범한 단조로운 길을 견딜 수 없었다. 이는 그를 암담하고 절망스럽게 하였다.(辦公室生涯就像沿著軌跡運行的列車一樣周而復始，那一種平凡的單調是他不能忍受的。(……) 這讓他心情晦暗，沮喪萬分。)(5쪽.)

24) 좁고 긴 우아한 아치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신비한 기도वाद 같은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그의 가슴에 와서 부딪쳤다. 온몸이 중처럼 웅웅거리는 떨림과 공명을 받았다. 그 소리는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와락 난가가 축축해졌다. 운명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는 생각했다.(抬頭望著細長的優雅的拱窗，忽然一個聲音在他心裏響起來，是一個神秘的祈禱般的聲音，一下一下，撞擊著他，他整個身體像錘一樣發出嗡嗡的震顫與共鳴，那聲音說，“走吧，走吧，走吧……”頓時，他眼睛潮濕了，他覺得是命運在和他說話。)(5-6쪽.)

25)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것, 그것은 시인의 본질이예요.”葉柔가 대답했다.(“從平庸的日常生活中出逃，那是詩人的本質。”葉柔這樣回答。)(11쪽.)

이는 서구의 실존론적 회귀 의식, 즉 비본래적 실존 상황에서 자신의 본래성을 찾으려는 의지적 사고와 유사성을 지닌다. 서구의 정신사는 줄곧 인간의 현존을 ‘고향 상실’로, 인간의 구원을 ‘고향 회귀’로 표현해 왔다. 따라서 파울 게르하르트는 지상에서의 인간을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보았고²⁶⁾, 하이데거는 인간의 현존을 존재로부터 이탈된 ‘고향 상실’로 간주하고,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성’을 선택·획득하는 ‘고향 회귀’의 과정, 즉 실존론적 회귀의식을 강조한다.²⁷⁾ 또한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유가 시인의 사유와 유사함을 피력한 바 있다.

작가는 80년대를 ‘시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의 세례를 받은 이들, 순수와 이상을 추구하는 이들로 작중 인물들을 형상화하였기에, 시인이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묘사한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들의 물 모델은 시인이며, 그 내면세계를 닮고 싶은 무의식적 동경이 잠재돼 있다.

小船, 내 아들이, 네 몸엔 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시인, 그들은 신에게 선택된 인간이란단다. 넌 세속의 잣대로 그를 재거나, 세속의 가치관으로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속박해서도 안 돼. 난 네가 이걸 알아주길 바래. 네가 시인의 마음을 지니고 시인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체득하길 더욱 바란다. 이는 내가 평생 부러워하던 일이야. 나로서 시인의 마음속에 깃든 세상이 얼마나 기묘한 모습일지 알 길이 없지만, 넌 그럴 수 있어. 넌 엄마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색깔을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흔적과 광채를 발견할 수 있단다. 아들이, 이진 너의 행운이자 숙명이야. (.....) 네가 아버지의 마음, 낭만적이고 천진하며 선량한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야.²⁸⁾

26) 소설에서 작가는 이와 유사한 사유를 담는다. “떠나자, 떠나자. 천국으로 가자. 이 땅에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走吧, 走吧. 到天國去吧. 地上, 一定有一處教堂, 在唱著這樣的頌歌.) (7쪽) 이 구절은 자아 찾기의 도정을 떠나는 시인 荊河의 사유이자, 이후 연인 葉柔가 갑작스레 죽었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마지막 구절에도 반복되는 말이다.

27) ① 전광식, 《고향——그 철학적 반성》, 문학사 지성사, 17-21쪽 참조. ② 하이데거와 관련된 부분은 마크 A. 래틀, 《HOW TO READ 하이데거》, 권진홍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2008, 28쪽; 마르틴 하이데거, 《월달린 시의 해명》, 신상휘 옮김, 아카넷, 2009, 44쪽; 이기상, 《존재와 인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2008, 125쪽 참조.

시인 “莽河”와 자신의 사랑의 소산인 아들 小船에게 쓴 陳香의 편지 중 한 단락이다. 그녀는 “시인의 피”를 계승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부러움을 담는다. 陳香에게 있어 시인은 신에게 선택받은 예언자적 존재, 즉 신탁을 해석하는 자라는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속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자유로운 자만이 시인이 될 수 있으며, 범인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흔적과 광채, 색깔과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라는 텍스트에 대한 민감한 포착, 감상 능력 및 심미안이 반드시 토대에 깔려 있어야 한다. 시인은 ‘암호해독자’인 동시에 민감한 감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낭만적이고 천진하며 선량한 품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시인의 천성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를 사랑하는 陳香 역시 이러한 본질적이며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품성을 추구하고, 시인을 흠모하는 것이다.

그렇까? 莽河는 수궁하기 힘들었다. 어쩌면 그가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능력, 소박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깊이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일 따름이리라. 그 속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그는 체득하지 못했다. 그는 곁에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듯 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눈으로 매일 살아가는 고향을 응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²⁹⁾

이 문단을 통해, 莽河에게 시인은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규정된다. 진심을 다해 삶에 열중하고,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는 자인 것이다. 그가 지켜본 관리이자 시인 洪景天은 태어나자마자 부여되는 공간인 선형적 고향을 뜨겁게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인이

28) 小船, 我的兒子, 你身上流著詩人的血, 詩人, 他們是一群被神選中的人, 你不能用俗世的標準來衡量他, 也不能用俗世的價值觀來判斷他、評價他、約束他。我希望你懂這個, 我更希望你擁有一顆詩人的心, 用詩人的心來體會這個世界。這是我一生所羨慕的事, 我永遠不可能知道世界在詩人心中是什麼奇妙的樣子, 而你能。你有可能聽見媽媽所聽不見的聲音, 看見媽媽所看不見的顏色, 發現媽媽所不能理解的神跡和光亮, 兒子, 這是你的幸運, 也是你的宿命。(……) 因為, 我相信你會有一顆父親的心, 詩人的心, 浪漫、天真、善良。(31-32쪽.)

29) 是嗎? 莽河不知道, 也許他只是沒有“熱愛生活”的能力, 樸實而真誠地生活的那種深刻的能力。那裏面的美和魅力, 他體會不到。他從來沒有像身旁的這個人一樣, 用這樣柔情似水的眼睛, 凝視他日日生活在其中的故鄉。(49-50쪽.)

다. 하이데거 식 표현인, '선행적 고향'과 '경험적 고향' 사이의 괴리가 느껴지지 않는 시인으로 莽河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선행적 고향'을 부정하고, 자신의 근원적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통해, '고향 상실'을 극복하고 '고향으로의 회귀'를 이루려는 도정에 서 있는 莽河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② 사랑과 인생의 길가기

결국 그는 그녀를 풀어주며 말했다. “葉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는 사실 값싼 약속이지. 장구한 인생 앞에서 나는 감히 ‘평생토록’이란 말을 할 수는 없어……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셨지. 인간은 누구나 어둠을 더듬으며 밤길을 걸어간다고. 나와 함께 모험하기를 원해?” (……) 그녀는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다. 눈앞이 지옥이라 해도 뛰어들 거라는 걸 알았다. 뛰어들어, 葉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덧없는 잘나에 사라지지. 영롱한 아침 이슬이 그렇고, 흐드러지게 핀 봄꽃이 그렇고, 소중한 소녀의 아름다움과 순식간에 사라지는 청춘도…… 그렇다면 사랑만 영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 (……)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받쳐 들었다. “인간은 누구나 밤길을 가는 나 그네야. 이게 바로 인생의 매력이지. 葉柔, 모험을 걸어. 어쨌든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을 지도 몰라.”³⁰⁾

운명적 사랑에 빠진 莽河와 葉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르다. 莽河는 운명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며 이를 받아들일려 한다. 하지만 葉柔에게, 시인이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선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³¹⁾이며, 자신이 꿈꾸는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기에 거부하려 한다.

30) 終於，他松開了她，說話了，“葉柔，我不想欺騙你，海誓山盟其實很廉價，一生很長，我不敢說‘終老一生’這樣的話……我奶奶說過，人都是摸黑走夜路的，你願意跟我一起冒個險嗎？”(……)她知道她完了。她知道前邊就是地獄她也要朝地獄裏跳了。跳吧葉柔，她對自己說，這世上，所有絕美的東西都是短暫的、剎那的呀，比如晶瑩的朝露，比如綻放的春華，比如珍貴的少女之美和轉瞬即逝的青春……那麼，又有什麼理由要求愛情永恆？(……)他用雙手扳住了她的臉，“人都是走夜路的，這就是人生的魅力。葉柔，冒個險吧，也許，我明天早晨就會死呢——”(56쪽.)

31) “……莽河, 당신이 시인이라 무서워요. 시인은 끊임없이 신선한 느낌과 사랑, 그리고 자극을 필요로 하죠. 이런 영원한 신선함이 없다면 시인의 영원한 영감도 없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난 평범한 여자예요. 내게 필요한 건 평범한 사랑이에요.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하지만 莽河의 진실하고 순수한 고백에 의해 마지막 방어 기제가 풀린다. 둘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인간의 삶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不可知한 운명을 더듬으며 헤쳐 나가는 모험의 연속이다. 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모험의 동행자’가 갖는 의미가 드러난다. 찰나 간에 사라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이러한 운명과 자신의 사랑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실존의 모색과 길 찾기가 가능해진다.

이들은 이제 중국 북방의 변경 지역을 함께 하는 여정을 떠난다.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의미를 되찾으려 시작된 莽河의 여정은 葉柔와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정, 서로의 애정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순수의 여정, 사랑의 여정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그리고 삶이 어둠 속을 더듬고 나아가는 모색이라는 말을 통해, 소설의 이후 서술의 중심이 ‘어둠’으로 표상되는 인생 비극과 부조리로 점철된 삶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확장될 것임이 암시된다.

“가지, 귀염둥이. 우리 출발하자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여정에 올랐다. 이 길은 조상들의 길이자, 우리 두 사람만의 길이기도 하다. 지금 하늘과 땅, 산과 물 사이에 그와 나 우리 둘만 존재했다. 수많은 계곡과 골짜기 사이에, 막 불어오는 바람 속에 나와 그만이 존재했다. 내 손이 그의 손 안에 꼭 쥐여 있었다. 葉柔, 됐어, 이 순간이 백 년의 세월보다 길어.³²⁾

백년헤로하는 그런! 당신은 제게 줄 수 없어요, 莽河. 나와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일생을 살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을 질리게 하겠죠. 당신이 싫증나고, 어느 날 날 버리고 떠날까 두려워요. 내가 당신 생명의 에피소드나 해프닝으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이런 결말이 두려워요.”(“……我怕你, 莽河, 因為你是詩人——詩人總是不斷需要新鮮的情感, 新鮮的愛, 新鮮的刺激, 沒有這些永遠的新鮮大概就沒有詩人永恆的靈感——可我說到底只是個普通的女人, 我需要的是普通的愛, 執子之手、與子偕老的那種! 你給不了我, 莽河, 你不可能和我平淡無奇地終老一生, 那只會讓你厭倦——我怕你厭倦, 我怕你有一天棄我而去, 我怕我只不過是你生命中的一段軼事, 一個插曲, 我怕這樣的結局——”) (55쪽.)

32) “走吧, 寶, 我們上路!”我心裏一暖, 上路了。這是前人的路, 也是我們兩個人的。現在, 天地之間, 山水之間, 只有我們, 我和他, 千溝萬壑之中, 初起的呼呼的風中, 只有我和他。我的手被他攥在手裏, 葉柔, 可以了, 這一刻長於百年。(63쪽.)

에당초 이 길은 葉柔의 '이주'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한 답사 여행길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걷어가는 여정에서, 이 길은 긴 인생사에서 본다면 순간에 불과하지만, 심리적 시간으로는 백 년의 세월보다 긴 소중한 시간이다. 각자 고독한 길을 걸던 두 사람이 함께 걷어가는 이 길은 둘만 존재하는 길, 서로의 존재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充溢해지는 그런 여정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이 길은 영원한 밀월 여행길로 가슴에 영원히 각인된다.

2.2 죽음과 운명 비극의 인생 여정

2.2.1 황혼, 비애와 불안: 비극적 운명의 암시

핏빛 석양이 하루 중 가장 애잔한 시간에, 산세에 의지해 근근이 남아 있는 흔적이 만리장성의 유해처럼 혼백처럼 느껴졌다. 葉柔는 남아 있는 흙벽을 어루만졌다. 순간 강렬한 비통함과 아쉬움이 생겨났다. 莽河가 손을 뻗어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만리장성의 유해 위에 서서 석양이 조금씩 산으로 지는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평생 처음 그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만리장성의 낙조를 보았다.³³⁾

莽河와 葉柔가 북방의 변방을 지나가다 맞이한 석양에 관한 묘사이다. 두 사람의 가장 행복했던 사랑의 여정에 작가는 일부러 이 장면을 집어넣으며, 이후 이들의 삶이 삶과 죽음으로 어긋날 것임을 암시한다.

작가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에 편집적이리만큼 '석양'에 대한 묘사와 이미지를 집어넣는다. 석양은 장엄함 속에서 낮과 밤을 가르는 슬픔과 비통함, 미련을 자아내며, 독자에게 '죽음'을 연상시킨다. 비평가 毛時安이 적확하게 지적

33) 殘陽如血，是一天中最憂傷的時分，那一點依著山勢殘存的痕跡就像長城的遺骨，遺骸，像它的幽魂。葉柔撫摸著土質的殘牆，突然有一種強烈的悲愴與不舍。莽河伸手摟住了她，他們就默默地站在長城的遺骸之上看著夕陽一點一點墜入群山。平生第一次，他們看到了一個壯美的長城落日。(72쪽.)

하듯, “생명의 소실과 석양의 서쪽으로 사라짐은 일종의 동태적 대응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석양이 죽음에 장엄하고 휘황한 배경이 되게 하는 동시에 일정 정도 죽음의 상징이 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죽음의 의의에 대한 심미적 관심이 전환된 석양에 대한 숭배”는 “늘 우리에게 곧 사라질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것과 짝은 懷舊의 정서와의 천연적인 연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³⁴⁾.

석양 이후 이어지는 것은 밤의 어둠뿐이며, 지난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만 비로소 빛의 도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석양에 대한 묘사는 이후 이어질 작중 인물들의 삶을 암시한다. 이어지는 서술에서 연인 莽河와 葉柔의 운명, 그리고 아들 小船의 죽음으로 초래되는 陳香과 老周의 운명은 그들의 사랑만으로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단절되고, 불가항력적인 이별로 인한 고통과 이어지는 그리움으로 점철되는 비극으로 기울어진다. 또한 에필로그 부분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별을 그린 장면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혼과 같은 맥락에서, 작가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품 도처에 작중 인물들의 불안한 예감, 슬픔과 상실과 관련된 계열의 단어——哀傷, 悲哀, 悲傷, 悲愴, 憂傷, 傷心, 淒厲 등——와 행복한 순간 문득 엄습하는 불안감을 배치하며, 그들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이는 자연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부조리한 비극적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먼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단락부터 살펴보자.

“柔야, 사람 보는 눈이 잼병이구나. 오빠의 충고를 들으려무나. 사람은 천 일을 하루같이 좋을 수 없고, 꽃은 백날을 붉게 피어 있을 수 없단다. 스스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³⁵⁾

34) 毛時安, <美麗的憂傷>, 《上海文學》 1992年 第6期, 1992, 72쪽 참조.

35) “柔啊, 我看你是挑花眼了, 听哥一句勸, 人無千日好, 花无百日紅, 不敢自己耽誤自己……”(16쪽.)

답사 여행 직전 들른 고향의 친척 오빠가 莽河의 뉘뉘이를 보고, 葉柔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청춘의 유한성을 강조하며, 감정에 솔직할 것을 충고하는 대목이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사그라지는 ‘청춘’, ‘젊음’, ‘열정’, ‘순수’, ‘사랑’, ‘시’ 그리고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웃었다. 갑자기 눈사태라도 난 것처럼 슬픔이 와락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기에 붙들 수 없었다.³⁶⁾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老周와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뒤 행복을 느낄 때, 문득 엄습해오는 陳香의 서러움과 비애를 묘사한 장면이다. 이 역시 인생에 관한 작가의 관조가 담겨 있다.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평생토록 순탄한 인생은 없으며 아름다운 것은 전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간은 이를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인생에 대한 본원적 자각에서 비롯된 비애인 것이다.

이렇듯 행복한 순간 속 엄습하는 비애와 불길한 예감, 불안은 다음 인용문처럼 소설 곳곳에 복선과도 같이 배치된다. 불안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기분이 아니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 전체 앞에서 느끼는 감정³⁷⁾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輓歌’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이 시각 그녀가 안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올 만가인 것만 같았다. 그것은 속세의 사랑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유성 한 줄기가 변방의 장엄하고 엄숙한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³⁸⁾

36) 她笑了。忽然有一種悲傷突如其來湧上她的心頭，雪崩似的。美都是瞬間即逝的，她挽留不住。(24쪽.)

37) 하이데거, 이인석 옮김, <현존재의 가능한 전체존재와 죽음을 향한 존재>(장 폴 사르트르 외 지음, 《죽음의 철학》, 정동호 외 옮김, 청람, 2004, 197쪽.)

38) 她把他緊緊抱住了，突然想到一個詞：輓歌，此刻她擁抱的好像是一段終將到來的輓歌，那是塵世的愛不能抗拒的宿命。一顆流星劃過了塞外莊嚴肅穆的夜空。(56쪽.)

2.2.2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삶의 진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작품의 후반부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 즉 현실 곳곳에 도사린 예기치 못한 운명의 비극과 이로 인해 ‘곤혹감’에 휩싸인 채 발버둥 치는 작중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앞에서 살폈던 ‘길가기’와 ‘여정’에 담긴 사유가 실존적 사유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음 소설에서 살필 주인공들의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은 삶의 ‘부조리’와 숙명성에 치증된다. 여기서 실존철학에서 강조하는 자각적 ‘기투’ 행위는 묘사되지 않는다. 이 점은 어찌 보면 여성 작가이자 ‘古典의 感傷主義者’를 자처하며, 중국의 계승해야 할 고전 전통인 ‘노스탈지어’ (“鄉愁”)와 ‘생명의 슬픔’ (“生命悲情”)을 드러내려는³⁹⁾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듯하다.

① 陳香, 잔혹한 삶의 진실과의 대면

老周와 결혼 뒤 陳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시인 ‘莽河’에 대한 사랑과 추억 역시 내면에 간직한 채, 아들 小船에 대한 강한 모성애를 보이며 단란한 생활을 향유한다. 하지만 이들의 짧았던 몇 년의 행복은 1986년 어느 날, 잔혹한 진실의 발견에 의해 한순간에 붕괴된다.

그녀는 멍해졌다. 4월의 봄바람, 비몽사몽의 봄바람 중에 서점을 빠져나왔다. 30분 전, 어쩌면 십여 분 전 서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세상은, 삶은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서점을 빠져나온 이 시각,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심장이 텅 빈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길을 걸었다. 정처도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걷고 또 걸었다. 무수한 행인들이 스쳐가고, 헤아릴 수 없는 죄악, 상처, 기만이 어깨를 스쳐갔다. 도시는 거대하고 사악했다. 사악한 기운에 압도돼 그녀는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⁴⁰⁾

39) 蔣韻, <我們正在失去什麼>, 《當代作家評論》 2005年 第4期, 2005, 67쪽 참조.

40) 她懵了。四月的春風中，渾渾噩噩的春風中，她走出了書店。半小時前，也許，十幾分鐘前，她走進這家書店的時候，世界是明媚的，生活是明媚的。此刻，當她走出書店的時候，生活在頃刻間變成了噩夢。她茫然地，如同一個空心人一樣走在街上，沒有方向，不辨東西，不知道自己

어느 날 서점에서 莽河의 시집을 살피다 陳香은 진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사랑한 시인 “莽河”가 실은 그를 사칭한 가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시인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도 열정도, 그 소산인 아들조차 기만과 거짓에 의해 의미를 잃게 됨을 깨닫는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름다웠던 세상과 그녀의 삶은 이제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그녀를 뒤덮은 이 도시는 사악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다가온다. 선의와 이상, 낭만으로 충만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부조리하고 악의적인 운명의 장난에 의해 한 순간에 의미를 잃는다. 방향을 상실한 채 무조건 길을 걷는 장면이 이를 잘 형상화한다.

집으로 돌아온 陳香은 이성을 상실한 채, 小船을 죽이려다 정신을 차리고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을 감행한다. 친구 明翠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죄의식으로 인해 삶은 지옥이 된다. 이제 그녀는 자기 손으로 마음을 죽여 버리는⁴¹⁾ 치명적 정신적 붕괴를 겪는다. 그 결과 老周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제기하고 친정엄마에게 아들 小船을 맡긴 채, 남방의 어느 출판사로 직장을 옮긴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신앙을 위해, 또는 죄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헌신하기 위해, 열사가 되기 위해”⁴²⁾ 희생물이 되는, 부조리한 숙명을 타고 난 것이다. 그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로 인해 남편 老周의 삶도 만신창이가 된다. 아내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인해 제기된 이혼으로 고통 받는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그는 ‘돌아갈 귀속처’가 없는⁴³⁾ 한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往哪裏去, 她走、走、走, 無數的行人與她擦肩而過, 無數的罪惡、傷害、欺騙與她擦肩而過, 城市巨大而邪惡, 她被一種邪惡的氣味熏得搖搖欲墜站不穩腳跟。(87-88쪽.)

41) “나는 내 마음을 죽여 버렸어. 누가 네게 마음도 없는 사람을 살려놓게 했지?”(“我把我的心殺了, 誰讓你救一個沒心的人?”)

42) 這個女人, 生來是要做烈士的, 是要赴湯蹈火和獻身的, 爲愛, 爲信仰, 或者, 爲罪業。(98쪽.)

43) 갑자기 그는 마음이 쓰렸다. 그렇다. 그는 집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어디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평원이건 산간 도시건, 북방이건 남방이건 다시는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突如其來的, 他一陣心酸, 是啊, 他找不著家了, 無論在哪裏, 在哪個城市, 平原還是山城, 北方還是南方, 他都再也找不著自己的家。)(105쪽.)

② 사랑하는 이의 죽음, 고통의 심화 혹은 극복

소설의 후반부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겪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대화시킨다. 작가는 작중 인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陳香 부부의 아들 小船, 莽河의 연인 葉柔, 莽河의 지기이자 형제인 洪景天)의 갑작스런 죽음이란 장치를 통해 이를 부각시킨다. 죽음,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남은 이에게 강한 심리적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어둠을 남기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즉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엄혹한 사실이 다시 한 번 각인된다.

하지만 작가는 의도적이지만큼 아들 小船의 죽음과 맞닥뜨린 陳香과 老周 부부의 장례식 광경에 많은 편폭을 할애하고, 莽河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받는 고통은 소략하게 처리된다. 이는 앞 소설에서 정신적 붕괴 수준에 이른 陳香의 고통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주로 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생명의 의미에 대한 묘사와 주제 의식에 장점을 지닌 작가의 독특한 풍격의 산물로 짐작된다.

내면의 붕괴 직전 간신히 남방으로 떠난 陳香에게 가혹한 운명은 미처 정신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용기도 주지 않고, 아들 小船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죽음으로 몰고 간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아들의 시신과 함께 하며,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끊임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이생에서 아이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이후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돼, ‘강박증’에 시달리다 결국 한 아이를 유괴하게 되며, 우울증 환자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삶의 고통과 죄의식은 그녀가 평생 짊어다가야 할 짐이 된다.

그녀의 남편 老周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陳香에 비해 나은 편이다. 대학생 시절 유부남이던 교수와 사랑하고, 이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같은 학교 선생 馬海龍의 처지를 동정하고 사랑하며, 그녀의 유학을 돕기 위해 결혼 수속까지 마친다.

2년 뒤 박사 과정에 입학한 馬海龍이 유학하고 있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막으로 아들 小船의 무덤에 들른 老周는 우연히 이곳에 있던 陳香과 회우한다.

그곳에서 陳香은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던 아들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죄를 老周에게 고해성사하고, 자신의 죄업을 짊어진 채 평생 혼자 살 것을 다짐하며 마지막 부탁을 한다. 자신으로 인해 馬海龍과의 결혼과 미국 생활을 포기하려던 老周에게 미국으로 가서, 그들의 자식 이름을 小船이라 지어 달라 부탁하며 그들의 행복을 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陳香은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기꺼이 삶의 희생자가 되고,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려 하는 것이다.⁴⁴⁾

다른 한편, 연인 葉柔가 그들만의 밀월여행에서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荊河 역시 그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고통의 나날을 지낸다. 결국 그는 시를 포기하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며 두 친구와 러시아 땅으로 도망치듯 나가 사업을 한다. 이는 변해버린 1990년대 시대적 분위기와 스스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결국 荊河라는 필명을 버리고, 본명 趙善明으로 살아간다.⁴⁵⁾

44) “하마터면 내손으로 아들을 죽일 뻔 했어요——” 老周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고난으로 무거워진 말라빠진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가 이 말을 결국 신이 아닌 가족에게 한 것이다. (……) “말해 봐요, 내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다면, 태연히 살아간다면 인간이겠어요?” 이게 바로 陳香임을 老周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영원히 가혹하고 무정하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이 계단 위 희생물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 (……) “인간은 자신의 죄업을 책임져야 해요. 순간간의 사악한 생각이라 해도……” (……) “오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질 테니, 당신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주세요.” “我差一點就親手殺死我的孩子——” 老周一把她攬在懷中, 緊緊摟住她細瘦的、苦難深重的肩膀, 她終於說出這句話了, 不是對神, 而是對一個親人。 (……) “你說, 我怎麼還能像什麼都沒發生過一樣, 結婚, 當一個孩子的媽媽? 我要是那樣, 能那麼坦然地去生活, 我還是人嗎?” 這就是陳香, 老周心疼地想。她永遠對自己這麼嚴厲, 這麼無情。她生來是生活這祭壇上的犧牲。這是沒辦法的啊。 (……) “人, 得爲自己的罪孽負責, 哪怕是一剎那的邪念……” (……) “哥, 我背我的十字架, 你背你的——”(186-188쪽.)

45) 그는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경험했다. 葉柔의 죽음, 곧 이어 찾아온 삶과 시대의 거대한 변화.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시를 포기했고, 모두의 화제가 '사업'으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이들이 발 벗고 돈벌이로 뛰어들었다. 시는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심지어 거북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시가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각자 돈벌이에 나선 동기와 이유가 있듯, 그도 자신을 마비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는 葉柔가 그리웠다. 너무도 그리웠다. (他經歷了一段極其痛苦的日子,

1980년대가 시의 시대라면, 1990년대 이후의 중국은 시가 죽어버린 시대, “철저한 물질과 욕망의 시대로 모든 이상·도덕과 낭만을 내버린 시대”⁴⁶⁾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사업적으로 성공하지만, 이는 청년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이던 ‘시’와 ‘시인’, 순수과 이상을 포기한 대가로 획득된 것이다. 반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러시아로 함께 간 시인 洪景天은 사업 때문에 신변을 위협받던 趙善明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했던 시인의 삶과 이상을 죽을 때까지 온 몸으로 체현한다.⁴⁷⁾

마지막으로 趙善明 역시 老周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던 사랑의 아픔을 러시아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나타샤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면서 치유하게 된다.⁴⁸⁾ 趙善明과 老周의 또 다른 사랑을 통한 고통과 상처의 치유는 어쩌면 작가의 사랑의 치유 기능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것일 터이다.

2.2.3 ‘상실’의 자각과 지나간 ‘청춘’에의 추도

알고 보니 그랬군. 알고 보니 그랬었구나. 어떤 여자일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한 여자의 일생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는 그 편지를 다시 펼치고

葉柔的死, 還有接下來生活和時代的巨變, 突然之間, 身邊的朋友們拋棄了詩, 大家的話題變成了“下海”。認識和不認識的許許多多人, 都脫鞋下海了。詩變得無足輕重, 甚至, 尷尬。詩所象徵的那一切幾乎是灰飛煙滅。每個人都有自己下海的動力和理由, 他也有, 那就是, 爲了麻木自己, 擺脫痛苦。他想念葉柔。非常想。)(143쪽.)

46) 蔣韻, <我們正在失去什麼>, 《當代作家評論》2005年 第4期, 2005, 64쪽.

47) 洪景天은 형제와도 같은知己 莽河를 위해, 자신의 관직과 사랑하는 여인까지 포기한 채 시인 莽河가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의 시에 대한 갈망은 러시아에서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죽은 시인 海子를 그리며, 그의 시를 암송하는 장면에 관한 묘사(164쪽)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莽河의 상처의 치유를 바라며 그를 위한 희생을 담은 유서와 같은 편지글(171쪽)에서 그의 순수함과 이상에의 추구를 발견할 수 있다.

48) 그는 결국 깨달았다. 일음과 눈으로 뒤덮인 타국 거리에서 낯선 노인이 이유 없이 그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었는지를, 만남, 趙善明과 나타샤와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 나타샤가 등장한 뒤, 고향을 떠나 러시아와 더불어 발버둥 치던 趙善明은 비로소 莽河의 곁테기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고, 정신적으로 은은하고 섬세하고 가느다란 꽃 葉柔와 작별할 수 있게 되었다.(於是, 他明白了, 爲什麼在冰天雪地的異鄉街頭, 一個陌生的老人會無端喚起他的滾滾鄉愁, 原來, 是爲了一個相遇, 爲了趙善明和娜塔莎相遇。有了娜塔莎, 背井離鄉、和俄羅斯一起掙扎的趙善明才會從莽河的軀殼中脫胎換骨, 才會在精神上告別葉柔那朵幽微的、纖麗安靜的花。)(147쪽.)

느연한 감동을 느끼며 자세히 읽어나갔다. 마지막 부분의 몇 마디까지 읽었다. “언젠가 네가 시골의 큰 길을 걷다가 금방 세수를 마친 듯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버드나무나 은행나무와 갑자기 만난다면, 그 때 너는 이런 순수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지겠지. 그러곤 네 생부와 같은 어떤 이들이 왜 평생토록 이런 길을 걸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가 시큰해졌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건 그의 청춘 시절의 이상이자 한때 동경했던 삶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읽으며 또 다른 자신과 만나고 있는 듯했다./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知己, 자신을 알아주는 여인을 만난 듯했다.⁴⁹⁾

사업가로 성공한 趙善明은 1989년 시인 海子の 시 <面朝大海, 春暖花開>에서 제목을 딴 아파트 단지 ‘望海小築’을 분양한다. 이는 시를 버린 그에게 남은 시에 대한 마지막 애정의 흔적이다. 그는 모텔하우스를 방문한 明翠로부터 陳香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小船에게 쓴 편지를 읽는다. 이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여인과 죽음으로 단절된 고통 때문에 자각적으로 방기한 그의 청춘 시절의 이상과 동경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그 시절 자신과 같은 이상을 간직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이해했던知己, 자신을 알아주는 여인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제가 예전에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세요? 저도 예전엔 시를 좋아했었죠.”/ “제가 예전엔 시인이었지만, 아마 시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걸 극치까지 사랑하는 건 사실 매우 잔혹합니다. 제겐 가장 좋은 친구이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시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훗날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같은 걸 사랑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맞죠?”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물으시는 건가요?”/ “네”/ 그녀가 웃었다.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잔혹하죠.”⁵⁰⁾

49) 原來是這樣，他想。原來是這樣啊。這是一個什麼樣的女人哪！他在毫不知情的情狀下居然改寫了這樣一個女人的一生。他重新打開了那封信，懷著凜然的感動細細地讀完了它，當讀到結尾那幾句：“假如，你走在一條鄉野間的大路上，如洗的藍天下，金黃的楊樹，或者，銀杏樹，與你突然遭遇，那時，你會被這種純粹的輝煌的美所深深打動，並且，你會理解，為什麼有的人終其一生要走在這樣的路上，就像你的生身父親。”他一陣眼熱鼻酸，盡管陰差陽錯，那可正是他青春時代的理想，是他曾經向往的人生。他讀著它們，就像在和另一個自己會晤。/ 也是在會晤一個知己。紅顏知己。(173-174쪽.)

인고의 세월과 지난한 삶의 굴곡진 터널을 빠져나오고, 자신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긴 중년의 나이. 이 나이에 사업가 趙善明은 산골 시골의 希望學校의 후원자 자격으로 교장 陳香을 만난다. 그리고 잊고 있던 내면의 순수함을 끄집어낸다.

시인이었지만 자신은 진정 시를 사랑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를 고백하는 趙善明. 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시의 아름다운 정신을 새기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잔혹한 현실에 의해 오히려 정신적 붕괴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陳香. 이처럼 시와 아름다움을 극치까지 사랑하다 참혹한 인생의 심연에 빠졌던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趙善明은 오히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잔혹하다”는 공감대만 느끼고 미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 문단에서 작가는 특히 ‘생명의 존재에 대한 당혹감’을 잘 표현한 듯하다. “蔣韻은 이 소설에서 시의 정신과 생명의 존재, 생명의 의의를 나란히 놓고 사고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고자”⁵¹⁾ 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陳香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가슴속에 슬픔과 낙담이 교차한 채, 그녀와의 이별을 준비한다. 결국 이별을 고할 때, 학교 아이들은 그의 청년 시절 시를 읊으며 귀중한 선물과 감동을 안겨준다. 저녁놀처럼 찬연히 빛나는 陳香의 눈물을 보고 그들은 心心相印의 눈물을 흘린다. 그의 순수했던 청춘은 이 산골 학교와 陳香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⁵²⁾

50) “我從前是個詩人。”/ 她微微一笑, “是嗎? 從前, 我也很愛詩。”/ “我想說的是, 我從前是個詩人, 可我大概從來沒有愛過詩。”他說。/ “爲什麼這麼說?” 她問。/ “愛一樣東西, 愛到極致, 其實很殘酷。我有一個最好的朋友, 兄弟, 他是我見過的最愛詩的一個人, 愛詩, 是他人生的使命……後來, 我又聽說了一個故事, 原來, 愛一樣東西, 真的是慘烈的, 對吧?” 他望著她。/ “詩其實很殘酷, 對吧”他望著她。/ “你問我?” / “對。”/ 她笑笑, “美的東西都很殘酷。”(191-192쪽.)

51) 허샤오권, 앞의 글, 283쪽.

52) 그는 그녀의 눈을 좇았고 그 안의 눈물을 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저녁놀처럼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음을 그는 알았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 가득 흘러내렸고, 차에 올라 그곳을 떠났다. 그의 순수했던 청춘 시절을 황토 먼지 자욱한 몸 뒤에, 陳香에게 남긴 채.(他尋找着她的眼睛, 他看到了那裏面的泪光。被陽光照耀着的、美如霞光的泪光。他知道不需要再說什麼了, 他乘車而去, 泪流滿面, 把他純真的青春時代留在了黃塵滾滾的身后, 留給了陳香。)(194쪽.)

이렇듯 간직돼야 될 소중한 것들, 청춘과 순수, 시, 사랑, 이상 등에 대한 추구하고 동경의 '상실'과 이러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추도'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蔣韻의 80년대 후반 이후 모든 소설들의 주제이자 주된 이미지로 기능한다. 이에 관한 작가의 말을 끝으로 본론을 끝맺고자 한다.

'상실'은 사실 줄곧 제 소설의 주제와 이미지입니다. 1980년대 말, 시대 밖으로 추방된 인물들, 삶의 '이방인'들이 제 소설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해하는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고, 고집스레 시대 밖에서 생활하며 정신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비극적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정신적 기질은 이후 제 소설의 밑바탕이 되었고, 제 소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80년대는 대변혁의 시대였지만, 이어지는 90년대는 철저한 물질과 욕망의 시대이며, 모든 이상, 도의와 낭만을 내버린 시대였습니다. 제 소설은 변혁의 시대를 이야기하건 욕망의 시대를 이야기하건 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분자(異分子)적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떤 문학 사조나 유파에도 몸담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⁵³⁾

3. 나오며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봤듯, 《行走的年代》는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삼아, 1980년대의 순수와 낭만, 이상 등 영원히 간직돼야 할 것들의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시대와 '청춘'에 대한 추도를 담고 있다. 또한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를 담으며, 독자들에게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러한 蔣韻의 작품에서 여타 다른 동 세대 소설가들의 작품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의 부정성을 강하게 환기하는 극적 효과나, 강한 논조의 비판적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강변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시'로 상징되는

53) 蔣韻, <我們正在失去什麼>, 《當代作家評論》 2005年 第4期, 2005, 64-65쪽.

순수와 걱정, 이상과 열정에 대한 동경과 추구, 이를 '상실'시키는 부조리한 현실과의 간극으로 인해 곤혹에 처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페이소스가 진하게 투영될 뿐이다.

소설 속에서 낭만과 걱정의 시대, 시가 살아있는 시대로 묘사된 1980년대에 대한 일종의 향수를 통해, 작가 蔣韻이 이 시기, 즉 과거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근원의 시간으로 각인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추를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의 내면에서 여과시켜, 끊임없는 변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실의 지난한 삶 이면에 존재하는 본원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기제로 삼는다. 작가의 내면에서 '과거'는 현재형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를 향한 '기억'이 현저하게 현재의 '감각'으로 이입되면서, 소설의 주제를 청춘(=순수, 이상, 사랑, 시)에의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상실된 시대에 간직해야 할 고귀한 정신으로 전환시키는 필력으로 승화시킨다. 이로 인해 구축된 작품 세계는 '기억'의 미학적 차원에서 구축되는 어떤 간절한 세계이지, 결코 퇴행적 '기억'으로의 도피나 역진은 결코 아닌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관찰에서 비롯된 “느린 사유를 통해 소설을 쓰며”⁵⁴⁾ 정제된 글쓰기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급격한 시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문학이 지닌 불변의 가치, 즉 인간의 '영혼'을 반영하고, 인간의 생존 조건과 정신적 조건에 대해 사유하고 탐색하게 만들며, 인간이 정신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하는 문학의 본질을 추구한다.

날로 가속화되는 현대화의 기치 속에서 본래 지켜나가야 할 것들, 이상과 순수를 '상실'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위기와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시대 환경에서 이러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의 가치와 역량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문학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일종의 신앙. 이를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이 시대의 고난 속의 영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작가의 글쓰기.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고전적' 작가가 일컬어지는 蔣韻의 글쓰기이자 작가 정신이 아닐까.

54) 허샤오쥘, 앞의 글, 277쪽.

<參考文獻>

- 蔣韻, 《行走的年代》, 上海文藝出版社, 2010.12.
- _____, 《길 위의 시대》, 허유영 옮김, 자음과 모음, 2010.12.
- _____, 《行走的年代》, 《小說界》2010年 第5期, 2010.
- _____, <在路上>, 《文學自由談》1992年 第4期, 1992.
- _____, <淺說成一>, 《當代作家評論》1994年 第4期, 1994.
- _____, <我給我命名>, 《當代作家評論》1995年 第4期, 1995.
- _____, <閱讀田野>, 《語文世界》2001年 第2期, 2001.
- _____, <想象的邊界>, 《天涯》2002年 第2期, 2002.
- _____, <我與《天涯》>, 《天涯》2004年 第4期, 2004.
- _____, <我們正在失去什麼>, 《當代作家評論》2005年 第4期, 2005.
- _____, <關於《隱秘盛開》>, 《當代長篇小說選刊》2005年 第5期, 2005.
- _____, <內心的力量>, 《語文教學通訊》2005年 第18期, 2005.
- _____, <《行走的年代》創作談: 紀念一些時刻>, 《中篇小說選刊》2010年 第6期, 2010.
- 李銳, 《拒絕合唱》, 山東文藝出版社, 2002.
- 查建英 主編, 《八十年代: 訪談錄》, 北京: 三聯書店, 2006.
- _____, 지음, 《80년대 중국과의 대화》, 이성현 옮김, 그린비, 2009.
- 郭險卿, 《蔣韻小說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郭海玉, 《試析蔣韻小說中古典與浪漫女性的悲劇命運》,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마크 A. 래틀, 권순홍 옮김, 《HOW TO READ 하이데거》, 웅진 지식하우스, 2008.
- 마르틴 하이데거, 신상희 옮김, 《휠덜린 시의 해명》, 아카넷, 2009.
- 맹판화(孟繁華) 지음,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김태만·이종민 옮김, 예담, 2002.
-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동녘, 2004.
-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 이기상,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2008.
- 장 폴 사르트르 외 지음, 《죽음의 철학》, 정동호 외 옮김, 청람, 2004
- 전광식, 《고향—그 철학적 반성》, 문학과 지성사, 1999.
- 한스 자너, 신상희 옮김, 《야스퍼스》, 한길사, 1998.
- 劉海燕, <蔣韻의 내륙>, 《作品》2003年 第5期, 2003.
- 毛時安, <美麗的憂傷>, 《上海文學》1992年 第6期, 1992.

- _____, <一個古典女性的現代淒迷——讀蔣韻小說《大雪滿弓刀》>, 《當代作家評論》 1995年 第4期, 1995.
- 曉華·汪政, <淒風落照麗人行——蔣韻的小說世界>, 《當代作家評論》 1995年 第4期, 1995.
- 賀紹俊, <長篇未能給人力量和勇氣>, 《中華讀書報》:
(<http://www.chinawriter.com.cn/news/2010/2010-12-28/92813.html>)(검색일: 2012.3.1.)
- 孟繁華, <二〇一〇: 印象“中篇”>, 《人民日報》: (<http://www.chinawriter.com.cn/wxpl/2011/2011-01-18/93418.html>)(검색일: 2012.3.1.)
- 王輝·蔣韻, <蔣韻: 拒絕浮躁 用“心”創作>, 《太原日報》(<http://www.chinawriter.com.cn/2006/2006-09-12/20365.html>)(검색일: 2012.3.1.)
- 楊占平, <蔣韻的小說: 為同齡人塑像>, 《太原晚報》: (<http://www.chinawriter.com.cn/2009/2009-03-24/70029.html>)(<http://www.chinawriter.com.cn/2009/2009-04-01/70143.html>)(검색일: 2012.3.1.)
- 張澄瑩·蔣韻, <蔣韻: 作家的獨立性就在於他對自己內心的忠實>, 中國新聞網: (<http://www.chinawriter.com.cn/news/2011/2011-05-24/98004.html>)(검색일: 2012.3.1.)

<中文提要>

自從1979年開始創作以來，作為‘古典感傷主義者’，蔣韻始終堅守著自己的獨特風格。她把目光投注在過去，以自己內心的忠實和敏銳的洞察力來感知和描寫社會變遷中歷盡坎坷的人們。在蔣韻的新作，長篇小說《行走的年代》裏也體現著作家的獨特風格。蔣韻用這篇小說向“她”的八十年代致敬。在作家的筆致下，這個時期描寫為“詩的年代”，“浪漫、天真、純粹的年代”。這個時期的主要特點是‘行走的年代’。這種行為暗示他們的種種人生旅程。小說的主要人物都堅守著浪漫、天真、純粹的品質。但荒謬的命運讓他們曆盡人生坎坷，他們終於‘失去’了該堅守的許多東西。‘失去’是這篇小說的主題以及主要意象。可以說，蔣韻寫出了同代中國人內心流淌已久卻未曾唱出的青春之歌。

關鍵詞: 蔣韻、《行走的年代》、八十年代、詩、純粹、浪漫、失去、行走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30.	2012. 8. 6.	2012. 8. 16.	2012. 8. 21.	2012. 8. 31.